

아브라함 카이퍼와 케직 영성

최태연(백석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와 기독교세계관(Christian Worldview) 운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의 영성에 대해 많이 연구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신학과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밑바닥에는 그의 독특한 영성의 추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영미의 기독교세계관 이해는 카이퍼 원래의 생각과는 달리 지성주의 경향이 강하다. 필자는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신학과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단순히 지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실천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영국의 케직 운동(Keswick movement)은 미국의 19세기 부흥운동을 대표하는 성결 운동(Holiness movement)의 산물로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 신자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부흥주의적이고 개인 경건을 중시하는 신앙과 신학 그리고 영성을 대변한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를 막론하고 성결 운동과 케직 운동의 경건주의와 부흥주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1875년 아브라함 카이퍼와 영국의 초기 케직 운동과의 짧은 만남에 주목하여 카이퍼가 어떻게 케직 운동을 수용했고 비판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첫째,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영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카이퍼와 초기 케직 운동의 만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상을 분석한 후, 셋째, 오늘날의 시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검토해 볼 것이다.

필자는 이 검토를 통해서 케직 운동에 대한 카이퍼의 단절과 비판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검토되었기보다는 급박한 현실 상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방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직 운동의 영향이 카이퍼의 영성에 남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카이퍼와 케직 운동 사이에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헌신과 성화의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신학과 성결 운동 또는 케직 운동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발돋움하려는 단계임을 밝힌다.

2. 카이퍼의 개혁주의 영성 형성

카이퍼는 1837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칼빈주의 전통이 관습화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인 얀 프레드릭 카이퍼(Jan Frederick Kuyper(1801-1882)는 어려운 형편에서 장학금을 받아 신학을 공부해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가 되었다. 얀 카이퍼는 초자연적 신앙을 가진 정통주의 목사였으나 교리적 정확성보다는 평화와 관용을 더 중시하는 온건한 정통주의자였다.¹⁾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 아래 신학적으로 온건한 칼빈주의의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는 어린

1) 그래서 훗날 얀 카이퍼는 아들 아브라함 카이가 이끄는 분리주의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따랐다. Jan de Bruijn,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Grand Rapids: Eerdmans, 2014), 3.

시절부터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대학 시절 레이든 대학 신학부의 모더니즘을 받아들였다가 그 후 시골 베이스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그곳의 정통 칼빈주의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경건하고 생동감 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받아들리게 된다.

그가 칼빈주의와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김나지움 시절이었다. 특히 그는 김나지움 역사 교수인 로버트 프라인(Fruin)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네덜란드 역사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칼빈주의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영향이 카이퍼가 박사과정에서 역사 신학을 전공으로 택하고(1859), 「칼빈(Calvin)과 아 라스코(à Lasco)의 교회관」에 대한 현상 논문을 쓰며(1860), 먼 훗날 프린스턴에서 <칼빈주의 강연>을 하는 데(1898)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카이퍼의 개혁주의적 영성의 형성은 크게 다섯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카이퍼는 모태로부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칼빈주의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카이퍼는 레이든 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1855) 라우엔호프(Rauwenhoff)와 얀 솔튼(Jan Hendrik Scholten Scholten) 같은 쟁쟁한 근대주의 신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칼빈주의는 혼란스럽게 변한다. 그는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마칠 무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했고 교회의 성립 근거는 성령이라고 믿었지만, 전통적인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 거리를 취한다.

2) 1859년 카이퍼는 레이든 대학에서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네덜란드 문학 교수 드 프리스(De Vries)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 제안은 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흐로닝언 대학이 주관하는 현상 논문에 응모하라는 것이었고, 주제는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Calvin)과 런던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신자들을 목회했던 폴란드 출신 개혁자 아 라스코(à Lasco)에 대한 것이었다. 카이퍼는 네덜란드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었던 아 라스코의 라틴어 전집을 드 프리스 교수의 부친인 드 프리스 목사로부터 기적적으로 얻는다. 그는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1860년 23살의 나이에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관」에 대한 논문을 흐로닝언 대학에 제출하고 최고상인 금메달을 받는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칼빈의 신학과 네덜란드 개혁주의 사상에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칼빈을 엄격한 교리주의자로 이해하고, 아 라스코는 삶의 실천을 강조했던 복음주의자로 파악했다.²⁾ 6년 후 카이퍼는 아 라스코 전집을 새로 개정하고, 주석을 달아 출판한다.³⁾ 그는 이 전집을 통해 뛰어난 역사 신학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 당시 카이퍼의 칼빈 이해는 훗날 <칼빈주의 강연>을 할 때의 성숙한 카이퍼와는 사뭇 달랐다.⁴⁾ 카이퍼는 1860년에 발표한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론」에 대한 주석(Commentatio)에서 칼빈의 교회론보다는 술라이어마허의 교회론을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로 생각했다. 그는 영적인 공동체(spiritual community)로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유기적이고 친밀한 연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칼빈의 교회론이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고 제네바 교회와 국가 간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못했다고 생각했다.⁵⁾ 또한 그는 칼빈의 예정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현재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신

2)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서울: 복있는사람, 2011), 99-100.

3) Jasper Vree and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Brill's Series in Church History 24) 2 vol., (Netherlands: Brill, 2005).

4)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에서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따라 하나님과 신자의 현재적 교제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경륜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고백한다. 『칼빈주의 강연』(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31.

5) Jasper Vree and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다는 점을 강조했다.⁶⁾ 젊은 카이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timor Dei)이 지나치게 구약적인 것으로 여겼고, 칼빈이 지나치게 구약을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아 라스코는 복음서를 중시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⁷⁾

3)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관」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한 후, 카이퍼는 10개월 동안 책상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했다. 그때 그는 그의 약혼녀인 요한나가 선물한 영국의 베스트셀러 소설 『레드클리프의 상속인』(Heir of Redclyffe)을 읽는다. 영국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샬롯 영(Charlotte M. Yonge)의 이 소설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거만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전자가 패자로 보였지만, 소설의 말미에는 겸손한 주인공이 승자가 된다. 카이퍼는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의 모습에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변화되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순간 이후로 내 영혼 안에서 그때까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경멸하게 되었고, 건방지게 무시하던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게 되었다.”⁸⁾ 이 소설은 카이퍼의 영성 형성에 첫 번째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4) 카이퍼는 레이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1862) 첫 목회지인 베이스트(Beesd)에 청빙 받는다. 그때까지 이론에 머물렀던 그의 칼빈주의는 일정한 시간 후, 진정한 회심을 통해 체험적인 칼빈주의 신앙으로 변화한다. 그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방앗간 주인의 딸 뱀쳐 발투스(Pietje Baltus) 같은 베이스트 교회의 평범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신학 박사 카이퍼를 불신하여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심방한 그와 악수조차 꺼렸다. 그러나 카이퍼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는 칼빈주의 신앙을 받아들인다. 이 사건은 카이퍼의 삶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다. 그는 이제 칼빈과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⁹⁾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과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마음을 갖게”¹⁰⁾ 된다.

5) 1898년 원숙한 경지에 도달한 카이퍼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6개의 강의를 한다. 그중의 첫 강의인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에서 그는 칼빈주의의 세계관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1) 사제주의에 대항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을 거부한다. (2)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독교 이념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구현한다. (3) 칼빈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체계(life-system)이며 삶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4)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우주론적 원리를 채택한다. (5) 하나님과 신자사이의 직접적인 교제를 추구하며 신자 안에서 교회를 본다. (6)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준다. (7) 전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준다. (8)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동등하며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섬겨야 한다. (9) 사회의 예측적인 위계질서를 반대하고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카이퍼가 여기서 받아들인 칼빈주의는 단지 교리나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로부터 파생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새롭고 일관된 세계관적 비전이었다. 그는 이 비전의

Lasco, and the Church, v. 1, 51.

6) Jasper Vree and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v. 1, 65.

7) Jasper Vree and Johan Zwa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v. 1, 91.

8)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102

9)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108.

10)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108.

기원을 16세기 개혁자 칼빈에게 돌렸다.¹¹⁾

3. 카이퍼와 케직 영성의 만남

3.1. 만남과 수용

카이퍼와 케직 운동(Keswick Movement)의 만남은 1875년에 이루어졌다. 이 만남은 첫 사경회가 열린 1875년 7월 이전에 영국 브라이튼의 집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집회는 미국의 평신도 부흥 운동 지도자 로버트 피어슬 스미스(Robert Pearsall Smith)가 미국의 부흥사 무디(D. L. Moody)와 아이라 생키(Ira Sanky)를 초청하여 주최한 '더 높은(성결한) 삶'(higher life) 추구하는 집회였다. 이 집회의 네덜란드 후원자인 빌렘 호비(Willem Hovy)는 후에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고 카이퍼의 정신적 지주이자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 당수인 흐론 판 프린스테레르(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의 친한 친구이며 동역자이기도 했다. 호비가 카이퍼를 이 집회에 초대해 준 것이다. 그렇기에 판 프린스테레르도 카이퍼가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¹²⁾

당시 카이퍼는 그의 첫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그는 반혁명당을 대변하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시 정계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일간지 「스탄다르트」(De Standaard)의 주간으로서 매일 사설을 쓰고 주간지 「헤라우트」(De Heraut)에는 성경 묵상을 실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쟁과 암스테르담 노회의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판 프린스테레르도 그의 건강을 걱정할 지경이었다. 그는 류마티즘으로 고생했고 특히 목과 어깨가 아팠고 얼굴 경련이 심했다. 때로 천식도 왔다. 그의 병은 1870년부터 시작하여 1873년에 다시 심해졌다. 과거에 그가 침체기마다 소설 『레드클리프의 상속인』이라는 소설이나 베이스트의 발투스 같은 신자들을 통해 개혁주의에 대한 회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번에는 브라이튼의 집회가 그 계기가 된 것이다.

카이퍼는 네덜란드에서 참여한 40명과 더불어 그가 기대하던 이상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다. 그는 피어슬 스미스가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이 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며 지적인 예배에서 신자들이 감격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로의 변화”¹³⁾를 경험했다. 카이퍼는 ‘자신의 잔이 넘치는’ 체험을 했다. 특히 그에게 피어슬 스미스의 아내 한나 위탈 스미스(Hannah Whitall Smith)¹⁴⁾의 설교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제일 먼저 한나

11)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32; Steve Bishop and John B. Kok, On Kuyper, Dordt College Press, Sioux Center: Iowa 2013, 221.

12)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 Eerdmans, 2013, 87.

13)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1.

14) 19세기의 잔느 귀용으로 불릴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가진 인물.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로버트 스미스와 결혼하였고, 1858년에 플리머스 형제단의 영향을 받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함이 자신의 전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는 체험을 하며 회심하였다. 이후 감리교 부흥운동가의 영향을 받아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미국과 영국에서 남편과 함께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결에 대해 가르치며 활발한 사역을 펼쳤다. 이들의 성결 운동은 케직 사경회 모임에 영향을 끼쳤고, 절제운동단체 설립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한나 스미스의 영혼이 가장 빛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 출간되었다. 그만큼 수많은 독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으로 생명력을 발휘하였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의 요절과 부부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말년에는 건강도 좋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출처: <<http://www.kyobobook.co.kr/author/info/AuthorInfo.laf?authorid=2001361501> (2017)>.

스미스는 청중들에게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항복하라고 요청했다. “그들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주님과] 투쟁했다....만일 그들이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항복하면(surrender) 그들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¹⁵⁾는 것이었다. 이것이 브라이턴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 두 번째로 한나 스미스는 신자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승리를 가져온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예수께 자신을 복종시키면(yielding) 전적인 헌신(consecration)을 가져오고 전적인 헌신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 이 승리는 신자를 내적인 갈등과 유혹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과거보다도 [영적] 전투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중의 에너지가 또 다시 다가올 [영적] 전투에서 주어질 승리의 확실성에 의해 배가된다.¹⁶⁾

카이퍼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느꼈다. 그는 브라이턴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의 연합(unity)이었다. 카이퍼는 모든 교파로부터 온 신자들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세력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그는 보불전쟁에서 싸웠던 독일과 프랑스의 참전 군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고 서로 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연합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브라이턴의 집회가 1851년 네덜란드의 영적 지도자 다 코스타(Da Costa)가 시도했던 ‘국제 복음주의 연맹 콘퍼런스’(the World Conference of Evangelical Alliance)보다 더 유연하게 개신교적 경건과 사회정치적인 관심을 통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¹⁷⁾ 그에게 브라이턴의 체험은 영적 정체에 빠진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카이퍼는 브라이턴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가 체험한 내용을 「스탄다르트」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생겼음을 느꼈다. 이전에는 신자들을 황폐한 환경에 내버려 두신다고 주님께 불평스럽게 고백했다. 그러나 나는 브라이턴에서 나의 영혼과 삶의 확신을 얻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 완전한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영혼에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활기차고 적절한 영어 표현인 헌신(consecration)이 요구되어야 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며 우리 자아를 우리 아내와 자녀들, 황금과 재물과 함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다.¹⁸⁾

거기에 더하여 그에게 헌신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했다. 정치적 행동가인 그는 네덜란드에서 브라이턴 집회를 모방한 지역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제일란트(Zeeland)에서 모인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선포했다.

[기독교]의 최근의 분수령이었던 종교개혁 때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고통받았다. 그래서 칭의의 메시지는 구원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고통으로 침체되어 있다. 따라

2017. 10. 5.

15)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1.

16)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2.

17)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2-93.

18)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3.

서 성화가 가져오는 평안과 능력이 요청된다. 브라이턴의 성공의 비결은...하나님의 언약을 영원으로부터 시간으로, 이 순간에 실재하게 해준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 그의 명확한 현존을 보여주심으로써 네덜란드의 신자들을 너무 오래 사로잡았던 무기력과 절망과 낙심을 깨부수시려는 것이다.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들의 정치적 광야에서 방향을 마치고 탕자와 같은 네덜란드 국가를 다시 아버지의 집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가오는 [영적이고 정치적인] 전투를 통해 제일란트는 또다시 종교개혁 때와 같이 국가를 구원할 것이다.¹⁹⁾

그러나 전통을 사랑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앙을 영미의 성결 운동과 부흥주의적 헌신의 신앙을 통해 다시 활성화하려는 이러한 카이퍼의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신앙 고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종교적인 사건과 정치적인 사건, 양면의 역사적 섭리가 그를 다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완고하고도 친숙한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

3.2. 결별과 비판

3.2.1. 역사적 배경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이 그가 퍼뜨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복음인 브라이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Wesley)의 성화론에 뿌리내린 브라이턴의 메시지를 개혁주의 전통과 접목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축복'(second blessing), '성령 세례'(the baptism of the Holy Ghost) 같은 용어를 피하고 개혁주의 전통에서 사용해 온 '성령의 인치심'(sealing of the Spirit)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고 '서원'(vow) 이나 금식(fasting)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그는 한나 스미스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면서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의 경험적 경건성과 연결했다. 그에게 브라이턴의 메시지와 개혁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쌍의 쌍둥이였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건이 그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첫 번째 사건은 브라이턴의 지도자 피어슬 스미스의 성적 탈선이었다. 피어슬 스미스는 웨이커 집안에서 태어난 필라델피아의 유능한 사업가였다. 그는 1857년경의 감리교 부흥 집회에서 신비한 성화의 체험을 경험하고 장로교회에 나가다가 같은 웨이커 교도로서 플리머드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아내 한나와 함께 성결 운동(holiness movement)에 투신했다. 그는 상류 계층 사람들과의 교제에 익숙했고 뛰어난 설득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브라이턴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뇌졸중을 겪으면서 성적 전율을 동반한 성령세례를 체험했고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자신과 젊은 여성과의 관계로 여기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1873년부터 아내 한나가 젊은 여성 신자를 애무하는 남편의 습관을 경고했지만, 그는 브라이턴에서도 젊은 여성 작가에게 성령세례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소식은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19)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3.

20)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4-95.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다. 카이퍼 역시 자신을 브라이턴에 초청했던 호비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두 번째 사건은 총선의 참패로 그가 구상하는 교육시스템의 개혁은 불가능해졌고 그는 의회에서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의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1876년 1월에 완전히 탈진했다. 마침내 판 프린스테레르와 친구들의 권유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스위스와 프랑스 니스(Nice)로 1년 3개월의 휴양을 떠난다. 이 기간은 카이퍼에게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고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브라이턴 경험을 숙고해 보면서 개혁주의의 기반 위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충분한 여유를 허락했다.²¹⁾

3.2.2. 완전성화론 비판

장기휴양에서 돌아온 후, 카이퍼는 세상을 떠난 판 프린스테레르의 후임으로 반혁명당 당수에 취임하고 다시 언론과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침내 그는 1878년 「헤라우트」에 ‘완전주의’(perfectionism)란 제목으로 일련의 논설을 신는다. 이 논설은 그가 브라이턴에서 경험한 영미 성결 운동의 신학(Holiness theology)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한때 영적 거룩함에 도달하는 분명한 길과 능력의 근원으로 여겼던 ‘더 거룩한 삶’(higher life)의 추구가 이제 그에게는 ‘잘못된 전제를 감추고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오류투성이의 신학으로 간주되었다. 그에 비해 그가 옹호하는 네덜란드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은 하나님 중심(God centered)이고 깊이 있으며 진지하고 유기체처럼 성장하는 경건성(piety)을 소유한 신학이었다. 그는 완전 성화의 신학적 문제를 다음 질문을 통해 제기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이전에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는가? 또는 오직 죽음 안에서만[통해서만] 벗어나는가?”²²⁾ 완전성화론은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죽음 이전에 타락한 본성을 벗어난다고 대답한다. 완전성화론에 관한 카이퍼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완전성화론자는 거듭난 죄인(born-again sinner)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좌 앞에 상한 마음으로 앞드리는 대신에 완전한 인간성의 왕좌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다.²³⁾

둘째, 완전성화론자는 인간 본성(nature)이 거룩한가 아니면 타락했는가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오직 인간 본성이 최악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거룩하게 나타나는지의 표현(expressions)의 문제에만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²⁴⁾

셋째, 완전성화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죄의 심각성에 대해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너무 낮게 보며 죄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본 결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인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불경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이다.²⁵⁾

넷째, 완전성화론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신자 대부분이 영적인 삶의 수준이 낮으며 의지의 심각한 약함을 경험한다. 그리고 매일같이 죄에 대한 고

21)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96-99.

22)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55.

23)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44.

24)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45.

25)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46-7.

통스러운 중독 증세 때문에 분노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²⁶⁾

다섯째, 완전성화에 도달했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화된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인 숭배도 이런 착각에서 나왔고 교회가 타락했기에 그것을 더 강하게 요구했다. 성결 운동이 보여준 거룩성도 유럽의 일반적인 신자들의 상황보다 나은 것이지 하늘의 영광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하늘처럼 높을 수는 없다.²⁷⁾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체험을 갑자기 한 사람들을 만난다. 이것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 있는 사역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도사린다. 이런 체험을 한 경건한 신자들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숨겨진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²⁸⁾

일곱째, 마지막으로 완전성화론자는 성화의 주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점을 간과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보다는 그들의 체험에 영적 토대를 두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은혜는 성령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의 법에 순종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²⁹⁾

완전성화론자에 대한 이런 비판은 동시에 브라이턴 이후 성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자신에 대한 준열한 자아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카이퍼는 우리에게 개혁주의와 성결운동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만한 하나의 단서를 남겨 두었다. “특히 인간의 완전성화론과의 싸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는 사람]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³⁰⁾ 카이퍼는 불완전성화를 믿는 개혁주의자가 완전성화론자를 비판할 때조차 ‘불완전’(imperfect)하다는 사실을 낮은 톤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면 카이퍼의 비판 이후 140년이 지난 오늘날 카이퍼의 입장과 카이퍼가 참여할 뻔했던 케직 운동의 신학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자.

4. 다시 검토해 본 카이퍼와 케직의 영성

카이퍼가 경험한 브라이턴의 부흥 집회와 그 결과로 성립한 케직사경회(Keswick convention)는 영미 복음주의 부흥 운동 중 세 번째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에 해당한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신학적으로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영향 아래 있지만, 대표적 지도자들을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배출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성결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 1792-1875), 철학자이며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의 첫 총장인 아사 메이헌(Asa Mahan, 1799-1889), ‘더 높은 삶’(Higher Life)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한 윌리엄 보드먼(W. E. Boardman, 1810-1886), 4중 복음의 창시자 A. B. 심슨(Albert B. Simpson, 1843-1919) 등도 장로교회나 회중교회의 목회자였다. 그리고 케직사경회의 주 강사였던 J. 엘더 커밍(J. Elder Cumming, 1807-1881),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1828-1917), 아서 피어슨(Arthur T. Pierson, 1837-1911), R. A. 토레이(Reuben A. Torrey, 1856-1928), 캠벨 모간 (Campbell Morgan, 1863-1945), 사무엘 즈웨머(S. M. Zwemer,

26)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47.

27)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48.

28)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50-1.

29)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161-2.

30)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145.

1867-1952), 조지 B. 던칸(George Duncan, 1912-1997)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때, 카이퍼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케직사경회를 반드시 거부할 필요는 없었다. 문제는 그가 만났던 피어슬 스미스 같은 초기 지도자들이 완전성화론에 치우쳤고 실천에서 자기모순을 보여준 데 있었다. 그러나 케직의 영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카이퍼의 영성과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첫째는 헌신(consecration)의 측면이고 둘째는 '점진적 성화'(progressive sanctification)의 측면이다.

4.1. 헌신(consecration)

냉철한 지성주의와 낭만주의적 성향이 모두 있었던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의 틀 안에서 성령에 의한 내면적 성화와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갈망했다. 이런 면이 그의 생애 마지막의 신앙수상록 『하나님께 가까이』에 잘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인생행로에서 처음으로 그분과 만나며 주님께서 우리 옆에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의식적이고 생동적이며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다....이러한 신앙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이다....이런 갈급함은 마침내 더 고상한 신앙에 대한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쌍방으로부터 작용이 시작된다. 즉 처음에는 그 간격이 멀리 떨어진 상태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마침내 간격은 전혀 없어지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은 너무나 은혜스러워 결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이다....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7)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하나님께 '가까이'한다는 것은 그 분께 아주 근접함으로써 눈이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며 자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럼으로써 모든 분리의 요인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것은 둘 중의 한 방법, 즉 자신이 마치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듯이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을 안겨 주는 고독한 중에 또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³¹⁾

카이퍼의 이 고백은 전통적 개혁주의의 신앙 체험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 내지는 성결 운동의 '더 높은'(higher) 신앙체험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기에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에서도 개혁주의의 양면적 특징을 함께 강조한 바 있다. 개혁주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일반적 우주론적 원리"³²⁾에 기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창조물과 직접 교제를 맺으신다는 숭고한 사상을 선포한다."³³⁾ 즉 개혁주의는 영성신학적으로 보면 먼저 '우리의 내적 자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결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얻게 된다. 이 사상은 놀랍게도 케직사경회의 주 강사였던 하트포드-배터스비(Hartford-Battersby)나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의 설교와도 일치한다. 하트포드-배터스비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할 수 있나』(How to walk more closely

31) 아브라함 카이퍼, 『하나님께 가까이』, 정성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12-13.

32)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32.

33)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31.

with God)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그분의 임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해야 한다. 건전한 교리나 정확한 윤리적 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는 데 목적을 두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더라도 에녹처럼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에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유언이다.'³⁴⁾

앤드류 머레이도 『더 높은 삶으로의 길』(The Pathway to the Higher Life)에서 헌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길은 우리가 '오 예수님, 당신께 가까이 가기를, 당신처럼 되기를, 당신의 능력을 얻기를' 기도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 예수는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대답하신다. 그분은 그 다음에 헌신을 테스트하신다. '너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만일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사랑의 확신으로 가득 찬 말씀이 들려온다. '그래 그렇게 될 것이다.'"³⁵⁾

4.2. 점진적 성화(progressive sanctification)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이퍼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더 높은' 영성의 오류는 성화(sanctification)에 대한 '완전주의'의 오류였다. 특히 카이퍼가 경험한 초기의 케직 운동 지도자들인 피브 팔머(Phoebe Palmer)나 피어슬 스미스(Pearsall Smith) 등은 '완전성화론'(entire sanctification)의 강력한 옹호자였다. 그러나 케직사경회에서는 이런 완전성화의 주장은 약화되고 점진적 성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미국의 성결 운동 지도자 A. M. 힐스(A. M. Hills)는 성경적 성결 운동과 케직사경회의 신학은 다르다고 비판할 정도였다.³⁶⁾ 비록 A. T. 피어선도 케직 운동을 소개한 그의 책에서 '완전한 무죄성'(Perfect sinlessness)을 이상적인 삶의 특징으로 보지만, 케직사경회에서 결코 완전성화론이 신학적 가르침(teaching)이나 방법(method)으로 주장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⁷⁾ '케직의 신학자'로 불린 에반 홉킨스(Evan Hopkins)도 '죄의 법으로부터의 해방'(Deliverance from the Law of Sin)이라는 설교에서 죄는 오염(defilement), 습관(habit), 경향(tendency)으로 볼 수 있지만, 그로부터의 해방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끊임없이 대항되고 상쇄되어야'(perpetually counteracted)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하나의 법으로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실현될 수 있을까? 또 다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익을 취함으로써이다....'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법 또는 죄의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다른 법[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끊임없이 대항되고 상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³⁸⁾

34) Herbert F. Stevenson (ed.), Keswick's Authentic Voice, (Grand Rapids: Zondervan, 2015), 258.

35) Herbert F. Stevenson (ed.), Keswick's Authentic Voice, 283.

36) A. M. Hills, Scriptural Holiness & Keswick Teaching Compared, Salem, (Ohio: Schmul Publishing, 1980).

37) 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In Precept and Practice(reprint), 2013, 38, 46.

38) Herbert F. Stevenson (ed.), Keswick's Authentic Voice, 156.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칼빈주의 신학과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들어 있는 실천적인 영성을 밝혀내기 위해 그의 생애에 일어났던 영국의 초기 케직 운동(Keswick movement)의 짧은 만남에 주목하여 카이퍼가 어떻게 케직 운동을 수용했고 비판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영성 형성이 다섯 과정을 거쳤으며 카이퍼가 초기 케직 운동의 만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얼마 안 가서 현실 상황과 성화론 등의 신학적 문제로 관계를 단절하면서 전면적인 부정을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자는 케직 운동에 대한 카이퍼의 단절은 이론적으로 검토되었기보다는 급박한 현실 상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방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직 운동의 영향이 카이퍼의 영성에 남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카이퍼와 케직 운동 사이에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헌신과 성화의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영성 신학과 성결 운동 또는 케직 운동의 영성 신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아브라함 카이퍼, 『하나님께 가까이』. 정성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 루이스 프람스마,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서울: 복있는 사람, 2011.
- Hills, A. M. Scriptural Holiness & Keswick Teaching Compared. Salem, Ohio: Schmul Publishing, 1980.
- Pierson, Arthur T. The Keswick Movement: In Precept and Practice(reprint). 2013.
- Stevenson, Herbert F. (ed.), Keswick's Authentic Voice. Grand Rapids: Zondervan, 2015.
- Bruijn, Jan de.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Grand Rapids: Eerdmans, 2014.
- Bratt, James D.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 Bratt, James D.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 Eerdmans, 2013
- Vree, Jasper. and Zwaan, Johan. Abraham Kuyper's Commentatio (1860): The Young Kuyper about Calvin, a Lasco, and the Church 2 vols. Brill, 2005.
- Bishop, Steve. and Kok, John B. On Kuyper, Dordt College Press, Sioux Center: Iowa 2013.
- <http://www.kyobobook.co.kr/author/info/AuthorInfo.laf?authorid=2001361501> (2017. 10. 5)